

실질적 여론수렴과정 마련돼야

메일링 서비스·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 활용 모색

'새터사고 이면계약'이 공개된 후,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투명한 학생회 재정과 일부 집행부에 의해 사실은폐가 가능한 비민주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판 여론 가운데는 이번 사건이 총학생회가 거듭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본사 대학부는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을 위해 2회에 걸쳐 이면계약 체결과 조직적 은폐 뒤에 가려진 총학생회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 ① 학생회 사업 재정문제
- ② 의사결정구조의 문제

새터사고 이면계약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시 총학생회 내에서 이 사실을 은폐한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32대 총·부총학생회장이 이면계약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집행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논의 없이 총·부총학생회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면계약 사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현 34대 총학생회에서도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국교4) 총학생회장은 "당시 문제는 상황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사업내용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표명 등 모든 결정 과정은 회의를 통해서

만 가능하며, 총·부총학생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행·운영이 그동안 학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총학생회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를 매주 소집하지만 총운위에서도 학내 여론이 수렴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학부 학생회의 의견 수렴과정인 단과대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운위는 총학생회와 단위 학생회를 연결해주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위 학생대표들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장은 "과·학부 학생회장 스스로 총학생회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거리를 갖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수렴하기 위해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총학생회는 현재 폐쇄된 홈페이지를 복구해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해 총운위 결정사항을 알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커뮤니티나 카페를 만들어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단운위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 밖에 앞으로 꾸준한 대안 모색과 개선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에게 한 발 다가선 총학생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뿌리뽑자 ...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본교 성폭력 근절위가 침묵에서 외침으로'라는 기조로 지난 15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2면(보도) 엠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연봉제 올해 규정만 제정... 시행 유보

학교 "임금체계 수정·재원마련 선행돼야"

새로 규정이 제정되면서 올해안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던 교수연봉제가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송석구(철학) 총장은 지난 12일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와의 면담에서 "연봉제 규정만 제정된 것"이라며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여론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봉제는 일단 규정만 제정, 시행은 잠정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은 지난 14일 전체 교수에게 핸드 오프스 메일을 발송해 "신규

교수부터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적용해도 기존 재직중인 교수와의 임금격차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체계 수정이 불가피하고, 충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봉제 실시를 미룬다는 학교측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학교당국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교수계약임용제와 관련, 2차 계약부터 기간을 △정임감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6년 △교수 정년까지로 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후 연봉제가 도입될 때의 전제조건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업적평가기준 마련 △기본연봉의 상향조정 △성과연봉의 인센티브제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장면담에서 교수회가 요구한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재정계획 철회 △교과목 폐강 기준 하향조정 △연구년 교수 확대 등에 대해 학교측은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사무처, 총무처로 변경 법인사무처와 혼돈 방지

사무처가 총무처(처장=황영수)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학교 법인사무처와 명칭이 유사한데서 오는 혼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최종 결정됐다.

총장 '2002 대만포럼' 참석 오는 21일부터 대학총장협의회장 자격

송석구(철학) 총장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고등교육을 위한 전자시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만 명천대학에서 열리는 '2002 대만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일본 등 세계 각 대학 총장과 각 국 교육담당 고위 공무원이 참석해 세계화·첨단기술과 고등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이며, 송 총장은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경주병원 발전기금 기부 심용섭 동문 7천600만원

행정대학원 동문인 삼양산업 심용섭 사장이 지난 11일 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7천600만원을 약정했다.

또한 정우 스님은 학교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정우스님은 지난 96년 발전기금 5억을 약정한 후, 이번까지 1억원을 기부했다. 한편,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 발전기금팀은 96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탁·약정된 발전기금이 연말이까지 총 5백66억1천537만원이라고 밝혔다.

원총 김영주·최경태 조 당선 연구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노력 다짐

18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결과 단일후보로 출마한 김영주(사회학 석사과정)·최경태(국어국문학 석사과정)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선거는 총 1천596명의 원생 중 161명이 참여해 약 10%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157명의 찬성으로 약 98%의 지지도를 보였다. 김영주·최경태 조는 △연구공간 확보와 개선 △학사행정에서 원우 참여 △휴게실 권리 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대학원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생회 건설이 늦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연구·학술 환경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교문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소

나와 남을 바꿔 보기

남산 아래 연못으로 봄나들이 갔다. 파스란 햇볕 아래 비단잉어들이 무리 지어 헤엄치며 산 그림자를 흐트리고 있었다. 동행한 누군가가 말했다. 다음 생애는 연못 속 비단잉어로 태어나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봄날의 감동을 깨뜨린 것은 건방진 조카이었다. 여행 온 학생 하나가 연못에 건방진 돌을 던졌다. 꽃 그림자 드리운 투명한 연못이 순식간에 물거품을 일으키며 수리장으로 변했다. 아름답던 비단잉어들이 건방진 돌을 향해 솟구쳐 올라와 입을 뻐끔거리며 서로를 밀쳐냈다. 쿵! 하고 발을 구르자 잉어들은 짙은 짙은 물속으로 잠수했다. 목가적 풍경이 왠지 무너졌다. 뒷산에 종달새 울고, 송아지는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냇가에 송사리 떼지어 노는 모습은 모두 착각이었다. 배고픔과 피살(被殺)의 공포로 떨며 살아가는 것이 가련한 짐승의 삶이었다. '보리도차제론'에서는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대할 때, 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대하라고 가르친다. 이를 '나와 남을 바꿔보는 수행'(自他相換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행을 되풀이 할 경우 우리의 가슴속에서 자비심이 자라나게 된다. 우리가 불교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타상환법'의 수행은 출가하시기 전 부처님의 마음을 닮게 해 주는 수행이다. 어릴 때부터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시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달리, 이기심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경우 나와 남을 바꿔 보는 '자타상환법'을 닦아야 자비심이 자라난다. 이렇게 자타상환법을 통해 자비심이 강화될 때 아라한을 지향하던 수행자는 열반을 유예(猶豫)하게 된다. 무한히 윤회하는 보살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수억 겁 동안 윤회하며 고통받을 다른 생명체들을 버려 두고 나 혼자 떠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성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2003년도 입시안 확정 1학기부터 수시모집

2003학년도 본교 입시 전형 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입시는 지난해와 같이 1·2차 수시모집과 정시 가, 나, 다 군 분할모집으로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시기를 앞당겨 여름방학 중에 실시되는 1차 수시모집은 담임추천자와 연기 재능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불교계추천자와 함께 선발한다.

2학기 중 실시되는 2차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장추천을 폐지, 담임추천으로만 선발하고, 특별고 출신자 전형을 새로 포함시켜 △불교계추천자 △외국어우수자 △수학·과학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함께 진행된다.

이 중 담임추천 전형은 1, 2 단계로 나눠 100% 내신 성적만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내신90%와 면접10%의 비율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정시모집은 지난해 다 군에서 실시했던 취업자, 군·경찰(소방)·유공자(손)자녀, 농어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을 가 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나·다 군 모집은 일반 전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고승 초청 개강법회 개최 내일(19일) 정각원

2002학년도 개강법회가 내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법회는 동국학원 이사인 배도원 스님이 '배일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란 주제로 설법하며, 학생·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본사 수습기자 선발 관계로 26일자 신문은 쉽니다. 다음 신문은 4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면안내

- 6, 7면 **토론문화 바로잡기**
일제와 군부독재로 이어진 강압적 역사로 인해 우리는 토론문화에 익숙치 못하다. 이에 민주사회에서 토론의 중요성과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 4면 **'알바생'도 노동자다**
- 11면 **대학가 진단**

수습기자 모집광고

대학신문기자의 꿈 ... 농치지 마십시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모집인원 : 서울·경주캠퍼스 00명
- 제출서류 : ① 지원서1부 (본사에서 배부 중) ② 자기소개서1부 (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및 선발 : 3월 21일(목) 오후 5시까지
- 장 소 :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사

총학 학자투 선포식 개최 오는 21일 불상 앞에서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 학원자주화투쟁선포식(이하 학자투 선포식)이 오는 21일 오후 2시 불상 앞에서 열린다.

이번 학자투는 △등록금 투쟁 △불교병원 조기개원 반대 △공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며, 오는 29일 전국 대학과 교육재정 확보·교육 시장화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본관 앞에서는 각 단위별 요구안을 반영한 '1과 시위'가 진행된다.

도서관 이용 설문조사 대부분 '만족' 시설 '불만족'

중앙도서관 서비스팀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 정책 결정과 업무, 환경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도서관 이용 △정보검색과 장서배치 △도서관 시설 환경 등으로 나눠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학생이 도서관 이용 전반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으나, 시설면에서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도서관 시설이 많이 낙후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환경특강 열려 '육선' 이금룡 대표 초청

경영대학원(원장=김태홍·국제통상학)은 내일(19일) 90주년 기념 문화관 1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경영환경특강을 연다.

주식회사 육선의 이금룡 대표이사를 초청해 '디지털 시대의 혁명과 신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후 7시 20분부터 시작한다.

대교협 내일(19일) 정책포럼 '국가인적자원 개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기준·서울대총장)는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관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학정책포럼을 연다.

포럼은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가 '이공계 기피현상의 진단과 전망' △진주산업대 정해주 총장이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성원 서울대 영문과 교수 등 각계 인사 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정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새터부정기감사 결과 발표 기준 강화 ... 예년보다 징계단위 늘어

2002학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 부정기 감사결과 총학생회를 비롯한 9개 단위에 예산 정지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 <표>참조

총대의원회(의장=윤재욱·역교4)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총 3개 자치기구와 12개 단과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징계 조치를 받은 단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윤재욱 총대의장은 "단과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총대의원회도 감사를 받았다. 총대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중앙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지만 앞으로 단과대대의원들에게도 꾸준히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는 지난해 이어 무기한 예산정지 조치가 내려져 지난 17일 총대의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총대의원회는 대동제 감사전까지 기준이 모호한 징계체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Table with 3 columns: 징계내용, 단 위, 시행세척 및 징계시유. Rows include 주의, 경고, 예산정지 2주, 예산정지 4주, 무기한 예산정지.

'교수 성폭력 연대회의' 기자회견

실효성 있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보완 촉구

본교 총여학생회(회장=허고은·중문3)와 서강대 등 5개 대학 여학생회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각 대학에서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통된 문제를 인식, 해결 선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교수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대부분 피해자가 교수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학생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며, 사전 해결을 위한 반성폭력 학칙 제정·실효성 보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피해자유발론, 음모론 등 성폭력 담론의 전형적인 유형을 짚어 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연세대 이김호진 총여학생회장은 "앞으로 연대회의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등국대, 서강대 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연대행동할 것"이며 "다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교수 성추행 사건 피해자 M양은 이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자투 주간 다양한 행사

새내기 농구대회·백일장 등

총학생회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학원자주화투쟁 출범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열리는 새내기 농구대회는 과별 남·여 한 팀씩 출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회비와 함께 새내기 30명 이상의 메일 주소를 각 단과대에 제출하면 된다.

여자부 경기는 자유투 경연대회로 진행된다. 또한 학원자주화투쟁이나 각 단위의 요구안 등을 외치는 '만우절 학자 행차기 대회'가 오는 1일 중앙도서관 처마에서 열린다. 새내기 백일장은 △'두사부일체'와 학원자주화 투쟁에 관한 단상 △새터 후기 △대학생활에서 연애

Table with 2 columns: 행사, 접수. Rows include 새내기 농구대회, 만우절 학자행사, 새내기 백일장.

Advertisement for '맑은세상 이야기' (Clear World Story) featuring Han Young-un. Text includes: '맑은세상 이야기' 기획자 한영운(독문3) 군을 만나 기본을 세우는 작은 실천 '올바른 담배 문화' 운동 등 펼칠 계획. Includes a photo of Han Young-un.

Advertisement for '한전무대' (Hanjeon Stage) featuring a 400-person performance. Text includes: '한전무대' 400인 도전! 400인. Includes a photo of a performer.

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오는 26일부터 3일간 선거

단과대 학생회 미션출 단위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5일 마감됐다. 등록한 대의원 후보는 △문과대= '대의원 바로서기' 박병길(사4) △이과대= '뒤 늦은 출발, 힘찬 발걸음' 김중대(화4) △예술대= '함께하는 대의원회' 박근덕(불교미술4)이다.

간 실시되며, 대의원은 선거기간에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한편 정산대는 후보자 등록마감까지 학생회장과 대의원장 임후보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강성규·컴공4)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Advertisement for '단과대 해오름식' (Department Welcome Dinner).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분과대, 시간, 장소. Rows include 불교대, 야간강좌.

Advertisement for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수습기자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the recruitment process,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03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the recruitment process,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02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the recruitment process,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사설 제도적 차원의 개선 요구

얼마전 중앙도서관 앞에서 본교를 비롯한 5개 대학 총학생회 및 여성위원회가 모여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각 학교 대표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경희대 L교수, 서강대 K교수, 본교 K교수 사건의 정보 공유와 연대 행동을 촉구하며 교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명서는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사회 내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바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권력 관계'가 성폭력이라는 구조화된 사회문제를 무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352곳 중 92.3%에 이르는 325곳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학 내에서 여학생 수의 급증으로 여성 '과위'가 강해진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창구 설치, 관련 학칙 규정 재·개정에 대한 권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교 역시 지난해 4월 K교수 사건을 계기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세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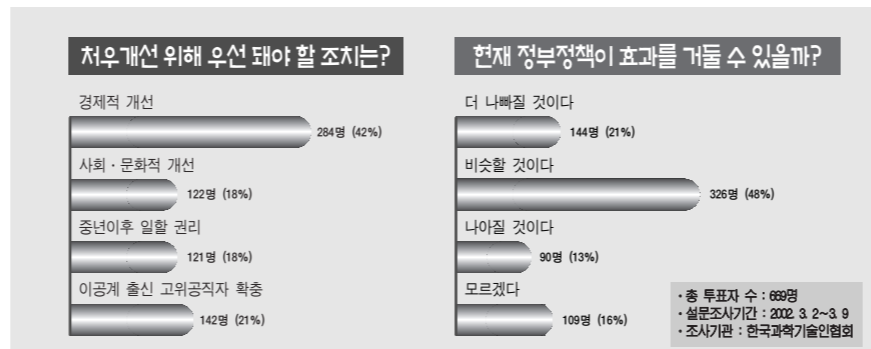
한편, 한국과학기술인협회 김진주 씨는 "의과대 과열현상도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공계 출신의 과학기술자들에 비해 비교적 비슷한 분야의 의학출신들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관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의학분야에 몰리다 보니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훗날 고급 과학연구인력이 부족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론화 되는 이공계열 기피현상

과학인력 홀대가 근본원인

10여년 전까지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조사에서 1, 2위를 다투었던 직업이 바로 '과학자'다. 그러나 이들이 20대 전후의 청소년으로 성장한 지금, 오히려 과학분야를 공부하려는 이들이 없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생의 문·이과 지원비율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7~8년전까지만 해도 약 3:7이었던 문·이과 비율이 7:3 정도로 역전된 것이다. 실제로 97년 35만명이던 이과수험생은 지난 5년간 15만명이나 줄어 작년에는 약 20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이과수험생의 숫자나 교차지원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몇몇 이공대학 미등록사태는 문과든, 이과든 지원한 사람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본교 공대 김병식(화학공학) 학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은 흔히 생각하는 기초학문경시 풍조와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고급인력, 즉 박사 이상의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가 그들의 노력에 비해 미미했던 것도 기피현상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이과수험생의 숫자나 교차지원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몇몇 이공대학 미등록사태는 문과든, 이과든 지원한 사람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본교 공대 김병식(화학공학) 학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은 흔히 생각하는 기초학문경시 풍조와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고급인력, 즉 박사 이상의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가 그들의 노력에 비해 미미했던 것도 기피현상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병역특례강화, 장학금 및 연구비지원확대, 사회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는 "유인책만 던질 뿐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은 이미 익숙하다. 중요한 것은 과학연구인력 없이는 과학기술을 창조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연구인력 양상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하려면 정부의 근본적 정책연구,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논단

홍근수
민중화해자주동맹협의회 상임의장



차세대 전투기의 아찔한 비행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 국방부의 투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처사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미국 보잉사의 F-15K,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 4개국의 유로 파이터, 러시아 로스보르제니에의 Su-35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들 전투기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9일부터 수명주기 비용(35.33%), 임무수행 능력(34.55%), 군 운용 적합성(18.13%),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등 4개 항목에 대한 1단계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1단계 평가에서 열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스텔스 탐지기능(IRST), 광학시스템장비(FSO) 등과 기술이전 보장 수준이 기준 미달인 보잉사의 F-15K도 0점 대신 60점을 받게 꽤 크게 유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례에도 어긋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말이 되지 않는다. 1단계 평가에 근거해 2단계 평가에 올라가서는 국가안보, 외교 등 '정책적 고려'가 작용하게 되어 있다니 미국을 우리와 혈맹으로 인정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회사의 F-15K를 채택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자가당착 빠진 국방부

그런데 얼마전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열린 기종별 평가작업을 받고 있는 공군과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획득정책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각 기종의 평가 항목별 최하 점수를 0점이 아닌 60점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전투기 40여대(미국은 본래 100대 구입을 요청했다)의 폭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1차 평가 마무리를 연기하고 이례적인 공문을 내보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진 국방장관은 국방연구소 등 평가기관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폭로 상황으로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수습하고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 당국의 합구령과 군 수사 기관의 조사 등으로 겁을 주는 방식으로는 의혹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 프랑스의 라팔이 전 부문 1위로 평가되었다는 보고와 동시에 외부압력설 등이 보도되자 국방부 당국자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F-15K에 대한 홍보가 있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는 외부압력설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발표가 나오기까지 했다. '오이 밭에서 갖근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던가. 차세대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이례적인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과 함께, 국방수뇌부의 '보잉사 F-15K 지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F-X 사업 재검토를

우리는 미국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북을 겨냥한 첨단 폭격기 도입, 이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미국의 F-15K건 프랑스의 라팔이건 차세대전투기의 성능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하더라도 도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평화군축이 단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공인의 말·말·말

△우리는 5공 과학기술 진흥정책이란 과잉선전의 산물이다
- '공급과잉'에 빠진 이공계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며.

△이공계열보다 철학·사학이 더 답답하다
- 이공계 기피논란을 지켜본 어느 인문학도가.

△새로운 이공계 유인책, '터미네이터' 4월부터 제작!
- 예전에는 태권V와 마징가 Z, 90년대 초에는 터미네이터2가 청소년들에게 대한 이공계 유인책으로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면서.

△의사는 이공인의 적이 아니다. 법조인은 이공인의 적이 아니다. 인문인도 이공인의 적이 아니다.
- 최근 이공계 기피 논란의 초점이 계열간 대립으로 번질것을 우려하며.

△당근만 보고 절벽으로 달리라는 것인가
- 정부가 고등학생들을 유인하려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아웃사이더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 개혁을 위해서는 과학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간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이메일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기 26 동국대학교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황룡사, 불국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불교종합병원!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불교종합병원
마침내, 오는 5월 준공! 12월 개원합니다!

황룡사, 불국사, 팔만대장경...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대작불사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혼돈 속에서 모든 인류가 신음하는 지금,
중생구제의 빛을 밝히는 대역사의 결실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불자들의 땀과 염원이 쌓이고 쌓여 탄생하는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불교종합병원!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원하여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21세기 최첨단 양·한방협진 전문병원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소재
- 연면적 27,0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 강북 최대 1,000병상
- 성인병·노인병 전문 클리닉
- 첨단시설, 정보화 시스템
-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선(禪)센터
-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병원
- 보호자 없는 병원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 불교종합병원원림기금등참안내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ARS : 060-7000-119



아르바이트생 당신의 권리를 찾아라!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단시간노동자 임의적 임금삭감 · 연장근무강요 등 거부할 수 있어

“강의시간에 늦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임금이 깎이거든요.”

매일 오후 5시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유모(21) 양은 다른 약속은 못 지켜도 일터에 제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만큼은 꼭 지킨다. 1분이라도 지각하면 그날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기계에 개인카드를 찍기 전까지는 ‘출근’으로 쳐주지 않아 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넉넉히 계산해 출발해야 한다.

그가 일터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또 있다. 바로 매장의 모든 일,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계획까지 담당하고 있는 매장 지배인이다. 고용주 대리인으로서 매장 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의 부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아서 유모 양은 일주일에 몇 번씩 밥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

굳이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도 대학생 상당수는 유모 양처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학비와 용돈을 직접 벌려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그에 맞춰 아르바이트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한 번 못해본 대학생 찾기 보다 더욱 힘든 것이 있다. 바로 단시간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가진 통상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며 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법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놓치고 있는 권리

유모 양의 경우 노동법에 보장된 △합부 로 임금 삭감 당하지 않을 권리 △단시간 노동자로서 연장근무를 거절할 권리 등을 놓치고 있다.

먼저, 노동자와 동의하지 않고 임의의 규칙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이다. 민주노총 여성총 교직차장은 “사규 내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장근무를 거절할 권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유모 양 뿐 아니라

많은 소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 놓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압구정동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전소영(21) 양은 “주인이 더 일해줄 것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말한다. ‘정’ 때문에,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차별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주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캠 주변 10개의 사업장을 조사해본 결과 사업주중 한 명만이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유급휴일, 유급생리휴가 등 세부내용을 알고 있는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주도 없었다. 대부분 구두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려대 강수돌(경영학) 교수는 “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이 이뤄질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중 한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10개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는 아

르바이트생에게 법적 최저임금이 아닌 시급 2천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캠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지방은 서울에 비해 임금이 훨씬 싸다”며 본교 주변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산대 앞 상가의 71%정도가 법적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권의 요구해야

이처럼 아르바이트생이 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도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고용주와의 인간적인 유대를 생각하거나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무 강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첫 걸음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지하철역 청소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지하철역 ‘청소 아줌마’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8일 5~8호선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여성노동자 인권보장과 구조조정 철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이들이 익숙한 지하철역 대신 어색하게 한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5, 6호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아침 6시부터 24시간 3교대로 나뉘어 지하철역을 청소한다. 이들은 역 내 바닥은 물론이고 사다리를 타고 벽과 조명을 닦는 위험한 일까지 감당해야 한다.

지하철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어도 먼지 속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지하철역 내 석면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간이 짧은 만큼 석면가루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소원 등 지하철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아무래도 좋은 말인가”란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이런 열악한 근무처마저도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시철도공사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업무효율’을 위해 청소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기존 4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인원도 현재보다 82명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조 최구순 5호선 지부장은 “노조와 대화를 꺼리는 용역업체 한 곳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 15개로 늘리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원이 감축되면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노조는 청소원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는데도 1년에 한번씩 용역업체가 바뀌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지하철 공사도 청소용역업체 한 곳에 27년의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에도 계약기간을 3년이나 연장할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노조측은 파업을 중단하고 용역업체와 교섭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승계가 불안한 1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파업을 벌이기 위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박순자 노조위원장은. 그는 “그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던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 찾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고용주, “정식 직원이 아니기에 ...”

본교 근처 사업장 고용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처벌받는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 P 카페 주인(박모 씨 · 48)

-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생들 위해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위해 만든 법을 학생들에게도 철저히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가.

= 거의 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는 업주, 학생 모두 번거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두로 계약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 학생들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지 않나.

=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들다는 핑계로 약속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 L 패스트푸드점 매니저(김모 씨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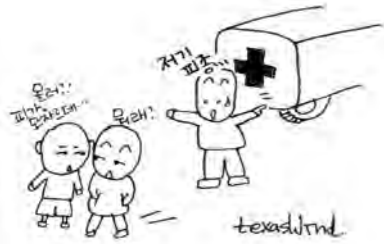
- 패스트푸드점은 낮은 임금이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패스트푸드와 같은 업종은 크게 직영체제와 체인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면 대체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반면 체인점은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해 때때로 평소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수준은.

= 직원들의 이동이 잦은 업종의 형편상 복지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기 어려운 형편이다. 본사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민희 기자 llith@mail.dongguk.ac.kr

동약로 피도 눈물도 없이



“현혈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현혈하고 가세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교내 봉사동아리 R.C.Y는 지난 13, 14일 양일 간 중앙도서관과 동국관 앞에서 현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 학기에 두 번씩 현혈차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현혈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기적으로 현혈을 하고 급하게 수혈이 필요할 경우 현혈을 하게 되는 ‘등록 현혈 회원’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어! 현혈차다. 잡히면 골치 아프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자”

“그래, 지난번에 지하철역 앞에서 현혈하라는 아줌마들한테 걸리는 바람에 얼마나 짜증났다고!”

이번 현혈 운동은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 현혈을 하라고 억지로 권유하기보다는 현혈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학생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혈차를 피해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거나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 이틀동안 현혈을 한 학생들은 157명으로, 작년 대비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다.

현혈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심리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 우리 모두 현혈 동지네!” 얼마전 TV에서 방영됐던 적십자의 현혈 캠페인

에서 밸런트 이수재 씨와 대학생들이 서로 현혈증을 보여주며 했던 말이다. 현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현혈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에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은 학생들뿐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학생들이 이 말에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실습비 접수 안내

금년도 교육(교생)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교육실습비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육실습기간 : 2002. 4. 1(월) ~ 4. 27(토), 4주간
2. 실습 및 오리엔테이션 대상자 : 사범대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중 4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으로서 1학기 「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실습학교를 배정받은 학생
3.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2002. 3. 27(수) 17:00
사범대 소강당(학림관)
4. 실습비 납부대상자 : 비사범계 교육실습 대상자
5. 실습비 납부금액 : 일금칠만원정(₩70,000)
6. 실습비 납부기간 및 접수처 : 2002. 3. 20(수) ~ 3. 22(금)
사범대 교과과
7. 교육실습 일시 및 명찰 교부 : 2002. 3. 27(수)
오리엔테이션 후
가. 사범대생 : 각 학과별 배부
나. 비사범대생 : 교과과에서 일괄 배부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전통사찰음식을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제4기 전통 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사회교육원생)
2. 접 수 : 2002년 3월 13일(수) ~ 3월 19일(화)
3. 정 원 : 30명(선착순 마감)
4.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5.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6. 강 사 :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7.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8. 교육기간 : 2002년 3월 20일 ~ 5월 29일, 매주 수요일 10:00-12:30
9. 문 의 : 여학생실 ☎ 2260-3056

언론사 준비반 입실시험 안내

1. 시험일시 : 2002년 3월 22일(금) 오후 4 : 00 ~ 6 : 00
2. 접수일시 : 2002년 3월 18일(월) ~ 3월 20일(수)까지
3. 접수장소 : 신문방송학과 사무실(동국관 3층 문구점 맞은편)
※학생증사본, 성적증명서, 영어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4. 시험자격
 - ① 현재 3학년, 4학년 재학중인 학생인 자
 - ② 2001년 2학기 현재 전학년 평균점수 2.5 이상인 자
 - ③ 남자인 경우 군필자 내지 면제자
5. 시험과목
 - ① 1차시험 : 영어, 논술
- TOEFL : PBT 600점, CBT 250점 이상인 자, TOEIC 850점 이상인 자는 영어시험 면제 (단 2년 내의 성적표 제출)
 - ② 2차시험 : 면접
- 면접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합격자는 개별통지)
6. 선발인원 : 11명
7. 문 의 : 신문방송학과 사무실 ☎ 2260-8723

생명윤리법에 대한 과학자들 입장 표명할 때

윤리는 반과학이라는 생각 여전 ... 생명공학계 내 진지한 토론 필요

굳이 생명복제나 유전자조작식품과 같은 논의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생명공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중적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의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치부되어왔던 과학 기술적 주제를 대중적으로 공론화시켰다.

또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사회 집단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토론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자, 생물공학자, 의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로 이루어진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부 산하에 조직되고 6개월에 걸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작년 5월에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오로지 과학기술 육성으로 일관했던 우리나라의 과학정책 현실에 비추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5월 공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생명윤리기본법의 골격이 제시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이 지연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의사들이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공청회 이후 과학계는 줄곧 윤리에 대한 강조가 생명과학 연구를 저해한다며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관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13명의 학회 회장을 비롯한 17명의 과학자들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학계의 제언'을 통해 "기본법 시안은 생명윤리의 잣대로 추상적인 위험성을 부각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연구자들이 대체로 "윤리=반과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과학 현실에서 윤리는 아직도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립항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솔한 사례를 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조합 DNA 연구자들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다. 1973년 종의 경계를 넘어 DNA의 일부를 재조합하는 기술을 처음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폴 버그는 과학잡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그 기술의 사회·윤리적 위해성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의 일시중지(moratorium)를 선언할 것을 제안했고, 1975년에는 같은 주제로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물론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도 생명윤리와 윤리기본법 입법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공학계 내에서는 생명윤리의 중요성과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운동 내부에서 종교단체와 여성단체, 동물권 보호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들이 분화되는 것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올해 안에 생명윤리기본법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공학 연구자와 관련 의사들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생명공학계 자체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표출되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동광
과학계 대표



과학과 철학

대체로 서양철학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비롯하였고, 동양철학은 실천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양 최초의 철학인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은 자연의 근원적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 운행하는가를 물었으며, 그 후 서양철학은 존재론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으로 있는 존재'를 이데아, 우시아라고 부르면서 이 세계 존재의 근원에 대해 탐구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중세철학은 '가장 현실적인 존재'로서의 절대적 신의 개념을 모든 존재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근대 이성주의 철학에서 이성, 정신은 세계를 지탱하는 본질이자 그 자체로 참다운 실체이다.

이에 비해, 동양철학은 존재 자체보다 인간의 삶, 행위 문제를 더 중요시했다. 기원전 6, 5 세기에 서양 최초의 철학이 생겨났는데,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동양 최초의 철학자인 붓다, 공자, 노자가 태어났다. 이 세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길인가에 대해 설교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런데 존재 자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근대 이후 자연과학이 현격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 중의 한 사람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바탕을 두고 서양인들은 자연 안에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가, 이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합집산하여 물질을 이루는가, 그리고 우주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탐구해 나갔다.

근대 이후 철저한 유물론적 존재론의 시각에서 자연을 추적해 들어간 자연과학자들에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요소로서의 원자 및 원소는 '가장 참다운, 현실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자연의 물질을 정밀하게 연구할 목표를 하는 물리학에서 종래의 원자적 존재론을 뒤흔드는 이론들이 나타났으니, 플랑크의 양자이론과 엔트로피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보어의 상보성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이 그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고전물리학의 토대가 타당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의 세계는 종래의 원자론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일탈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가 문제로 된 시기이다. 식물과 동물에서는 배아복제가 이미 실현되었고, 인간배아복제도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지 및 영상도 '존재'라고 인정해야 할 시대에 이르렀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물질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일이 오늘날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과연 어떤 것이 '참다운, 현실적인 존재' 인지를 새로운 기반 위에서 탐색해야 할 때다. 과학과 철학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인간배아복제 기술 시대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해보자.

21세기 지식인 사전

언어철학자·사회학자 노암 촘스키(Noam Avram Chomsky)

구조언어학을 주류로 하는 미국 언어학계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 노암 촘스키(74·Noam Avram Chomsky) 박사.

촘스키 박사는 1928년 필라델피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5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로 지내며 '생성문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가 창시한 생성문법이론은 언어를 기호체계로 파악한 구조주의 언어학을 뒤집은 것으로, 문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학이다.

그러나 촘스키 박사는 우리에게 언어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실천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동티모르와 코소보사태 등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아만성과 실상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배 엘리트층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목시적으로 지지하면서 대중을 순응주의의 우둔함으로 가뒀는 미국의 대중 매체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촘스키 박사는 미국의 매스미디어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위해 모든 뉴스를 철저히 왜곡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으로 그는 '미국의 대표적 양심'으로 꼽히고 있다.

새내기맛이 공개토론회 - 미국, 보수정당, 보수언론 "역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해야"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미국, 보수정당, 보수언론을 주제로 '손석춘(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함께 하는 새내기맛이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시간 강연, 학생과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손석춘 씨는 강연에서 역사를 통해 본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여론칼럼을 통해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말한 그는 "엄연한 주권국가를 악의 축으로 칭하며 전쟁불사를 공공연히 선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환영하고 나선 우리의 언론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발행부수 1, 2위를 차지하는 이 신문들은 남한마저 공포에 휩싸이게 할지 모르는 미국의 전쟁불사 발언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을 버리고 다시 북에 강경 정책으로 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석춘 씨는 "이러한 언론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이는 보수정치인도 마찬가지"라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미국과 일본 방문에서 연이어 내놓은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 발언을 비판했다.

강연을 마치며 그는 새내기들에게 "지금의 한·미관계와 보수정당·언론의 여론 왜곡문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친일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학술단신

현대 미술가 백남준 연구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소장=임정택·연세대 유럽어문학)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백남준과 미디어아트'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연다.

국내에서 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백남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학자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백남준의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미래 디지털문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미나

우리 현대사를 파헤치며 역사 복원을 위해 노력한 MBC 특별 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주제로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이범수·동아대 신문방송학)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역사의 복원과 방송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되며, 방송이 미친 사회적 변화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2002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3 Fax. 2268-7851



한국의 전통조경

우리나라의 조경을 살필 수 있는 궁궐, 주택, 별서, 사찰, 서원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정. 문헌 고찰, 풍부한 도면과 사진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수록.

홍광표·이상윤 공저 / 값 14,000원



儒門事親

금원사대가의 일가(一家)로서 한(汗)·토(吐)·하(下) 3법의 치료법을 주장한 장자화(張子和) 선생의 저술인 유문사친(儒門事親)의 번역서.

구병수·이동원 공역 / 값 25,000원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보안 응용'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핵심이 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개념과 기술적인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송유진·주재훈 공저 / 값 12,000원



한국현대문학사

개화기문학으로부터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일제말기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 시, 소설, 비평을 중심으로 그 경향과 각 문학운동에 대한 고찰을 거쳐 한국현대문학사 전반을 다루고 있다.

김선학 저 / 값 14,000원



韓國佛教全書 第十三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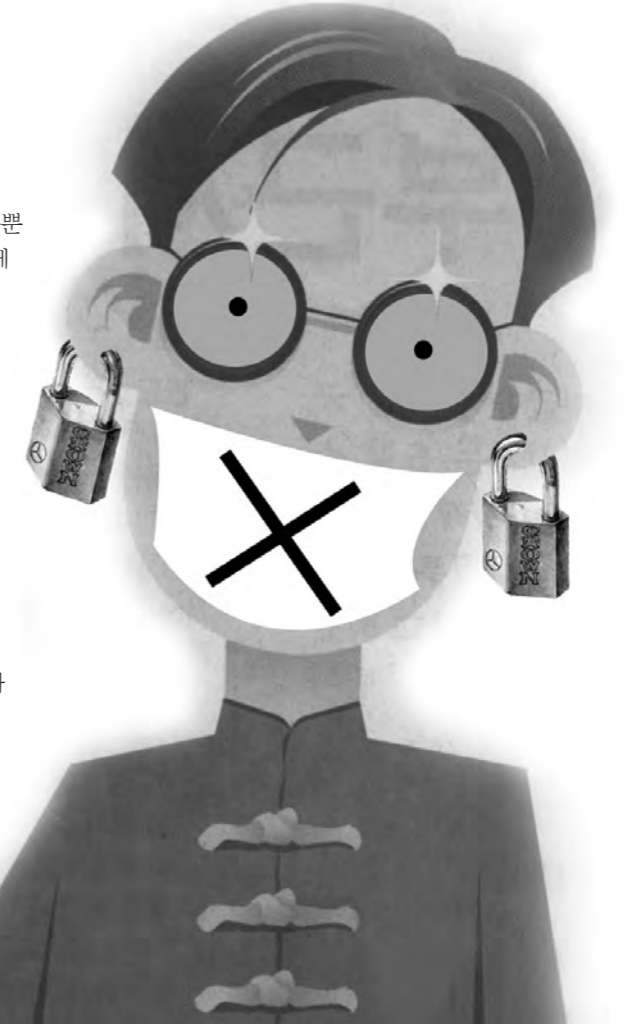
1996년 제12책이 간행된 이래, 5년 만에 후속 출간된 한국불교학연구의 正典!

유식학의 주요 논서인 유가사지론과 신라 도륜(道倫)의 註記(유가론기)를 함께 편집하여 실은 유가론기 회편본. 송장에 수록된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대장장에서 잘못 읽은 오탈자들을 대폭 바로잡았다.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편 / 각 권 80,000원

당신의 무거운 입과 막혀있는 귀를 열어라

강압적 역사 속 낯설어진 토론문화 ... 대화, 비판 수용하는 열린사회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토론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승리'를 토론의 목적으로 여겨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토론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민주사회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는 토론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토론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우리사회에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너 밥 먹었니?" "너 오늘 화났었니?" "남자친구 있니?"

서로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은 절대로 상대의 물음에 대답해서는 안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아니' 혹은 '응' 이라고 말한다면 대답할 쪽은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귀를 꼭 막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 된다. 상대의 이야기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스운 게임과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금 주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자.

"이게 어디서 말대꾸?"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어린 녀석이 버릇이 없다는 꾸지람이 이어진다. 버릇없는 아이를 혼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가끔은 너무 억울한 경우도 있다. 자유롭게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조차 어른들에게 반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화가 아닌 화, 감정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웃끼리 혹은 가족끼리 다름 경우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히기보다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오죽하면 한국인들이 싸울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렇지만 우리의 국민성이 원래부터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 식민지 그리고 군사독재를 거쳐 오면서 어느새 우리는 이야기 나누는 문화를 낯설

게 느끼게 된 것이다. 강압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명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고 그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저 조용히 권력자의 말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국민을 양산해 버린 일제와 군사독재 체제의 우민화 교육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이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습성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말하는 자유가 보장된 지금까지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계에서 토론의 장을 펼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일반화로 인해 서로 마주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에 따라 사이버 토론이나 게시판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조한 시청률을 유지하던 토론 프로그램들도 '토론 프로그램은 따분하다'는 기존의 공식을 불식시키고 전에 없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과 PC통신의 시청자 의견이 너무 많아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최근 초등학교는 열린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토론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면서 토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딱 하나뿐인 정답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토론은 쓸데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열린 공간이어야 할 대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 강단을 찾았다가 조용한 한국 학생들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 기 소르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대의 초청을 받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가졌다. 파리의 대학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과 논쟁을 벌일 것을 기대하고 그가 질문을 요구했을 때 그는 학생들의 침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사회에서조차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회에서 어떻게 토론이라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기와 입장이 같으면 선이요, 다를 경우 악이라는 흑백논리를 펼치며 감정적 언어로 서로를 매도하고 그러한 다름이 극에 달해 몸싸움까지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 반쪽 국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무거운 입과 딱 막혀 있는 귀를 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귀와 입을 잠고 있던 자물쇠는 이미 오래 전에 풀려졌지만 아직도 그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 권위의 전통을 깨고 대화와 비판, 관용의 정신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얼떨 토론의 현장을 찾아서

망설임은 No, 다른 의견은 Yes

대화참여로 더 많은 지식 얻는 토론해야

"지금부터 ○○○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 "그러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의 시작을 알리며 사람들의 의견을 기다리지만 발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회자는 어쩔 수 없이 발언할 사람을 지목한다.

약간 과장된 감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숙스럽기도 하고 '내 의견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며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한겨레신문사 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원탁토론'에 참여하여 1주일에 한번씩 토론의 장을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에 원탁토론에 직접 참여해 '토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9일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원탁토론 9번째 수업이 진행됐다.

회현상이나 자신이 궁금한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F15기 도입 논란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문제 '인건비를 줄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문제' '백도날도 불매운동과 같이 어떤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하지만 이 중 집중적으로 토론할 주제를 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논제를 제시한 발언자의 의견에 대한 다른 참석자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 뿐이었다.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발언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 내용을 필기하며 발언을 준비한다. 토론의 흐름을 읽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토론자는 없었지만 각각 나름의 생각을 발표했다.

토론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한 토론자가 엉뚱하게도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동)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논의되고 있었던 주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발언이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토론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사회당과 민노동의 통합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노동과 사회당은 정책의 합의를 찾기 어려우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만으로도 의

미 있는 일이다" "정책의 차이 때문에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유분방하게 흘러나왔다. 예전에 학생운동 경험이 있다는 한 토론자는 학생운동과 진보 운동 역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펼쳐 놓기도 했다. 사회당과 민노동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본 후 토론이 마무리되고, '대화' 면담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자 강지원(강원대·사학) 교수의 강의를 끝으로 이날 원탁토론은 막을 내렸다.

토론이라고 하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한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자들의 '공방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토론은 단답, 대화, 토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라고 덧붙였다.

한 사람이 열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열 사람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문답과 대화, 토의, 논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원탁토론. 토론에 참석하고 나서 원탁토론의 의의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대학 내 토론문화 들여다 보기

학생들의 수업준비도가 토론수업 성과 좌우

20여명의 학생이 빙 둘러앉아 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토론은 소수에 의해서가 아닌 모든 학생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며, 공방전이 계속되어도 얼굴을 붉히거나 남을 무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 밖에서는 교수가 가끔 조언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대학 강당이 이처럼 정립된 토론문화 속에 진행될 것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 내 토론수업은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발언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침묵을 지키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문과대의 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어찌나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길어진다고 짜증을 낸다"며 토론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한다.

대부분 조별학습으로 이뤄지는 토론수업은 조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별학습의 학생참여가 저조해 수업이 소수에 의해 준비, 진행되는 '반쪽수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수가 많아지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갖는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 뿐 아니라 학교의 열악한 상황 역시 토론수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강의 당 학생수가 토론수업을 진행하기에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학부제 도입 후 정원 100여명이 넘는 교양과목으로 수업시간 절반 이상이 채워지는 신입생의 경우 토론수업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최근 토론수업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바른 토론수업을 위한 대안 제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본교 김영순(화학) 교수는 "이공계열의 경우 토론 수업이 힘들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은 토론을 통해 풀이하려 한다"며 토론수업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타 대학들 역시 토론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희대의 경우 지난 학기부터 '토론과 분쟁'이라는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에게 토론수업에 필요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서울대 김세균(정치학) 교수는 토론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번 학기부터 수강생을 4~50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업준비가 토론수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토론수업에 임하는 학생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 토론 또는 학내 토론 동아리나 소모임 등을 조직해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 알'과 '대학생들의 사회'와 같은 대학생 연합 토론동아리들은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며 학생 자치적으로 토론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예외에 어긋나는 사회 구조로 인해 토론문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

했다. 그러나 토론이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금, 고등교육이 이뤄지는 대학에서 먼저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전(æ) 100분 토론 진행자 유시민 씨를 만나

“권위주의는 토론의 적 교육 통해 극복해야”



요즘 각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토론프로그램에서는 참석한 패널들이 상대방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인식공격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미성숙한 토론문화의 심각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에 지난 1월말까지 MBC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칼럼니스트 유시민 씨를 만나 우리나라 토론문화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100분 토론' 진행을 통해 느낀 우리사회 토론문화의 문제점은.

= 우리나라의 토론문화는 '토론의 적'인 권위주의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욕 안 먹으려는 풍토 때문에 상대방에게 한가지 비판을 가하기 위해서 아홉가지의 칭찬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 토론문화의 현실이다. 또한 토론자리에서 흑 아니면 백으로 완전한 결론을 지으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승부근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분 토론'의 경우 매주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정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떠한 정당도 없다. 그런데 시청자와 패널들은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주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토론은 지켜보는 사람이나 패널들이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을 전환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다.

- 우리의 토론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원인은.

=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교육이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왜'라는 질문이 어른들의 권위에 의해 묵살당해 왔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교육현실에서 자라왔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거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토론의 기본인 대화를 단절시켜 왔다. 따라서 화법, 나아가 토론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지식인들이 모였다는 대학 내에서도 토론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토론수업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수들의 역량부족문제와 토론수업을 기피하는 대학생들의 성향도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경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토론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는 논리와 기술이 탁월하다.

-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토론문화는.
= 토론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비판을 가해도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비판을 욕이 아닌 '비판'으로 듣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토론문화 수준은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고를 보고 토론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공격이 난무하니 진정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일에 있을 때 TV에서 방영되는 국회의 예산안에 관한 토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한번의

토론을 보고 독일 내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대립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토론이 원활했다. 우리나라의 토론문화도 충돌하는 의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 성숙한 토론문화로 자리잡기 위한 방법은.
= 우선 자신의 의견에 솔직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토론 중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활발한 퍼붓고 상대방의 의견은 들어줄 줄 모르는 '사오정 토론자'의 자세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 교육체제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수업의 수를 증가시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에 대해 분명하게 논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한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토론의 장이 자주 마련되도록 하고 나아가 토론문화를 생활화하는 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말문 막기 비법 공개

잘나가다 '삼천포'로 빠지셨네요

상황 I
엄마 : 00야! 저 아래 가게에 가서 오이 2개만 사와라.
아들 : 아~ 엄마~, 지금 친구랑 통화중이에요.
엄마 : 빨리 전화 끊고 다녀와. 이제 저녁준비 해야한다 말이야.
아들 : 엄마 정말 중요한 전화란 말이예요.
엄마 :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다녀오라는 거니?
아들 : 엄마 TV보고 계시잖아요. 엄마가 다녀오시면 안돼요? 정말 중요한 전화라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엄마 :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키면 얼른 일어나서 다녀와야지. 너 자꾸 말 안들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아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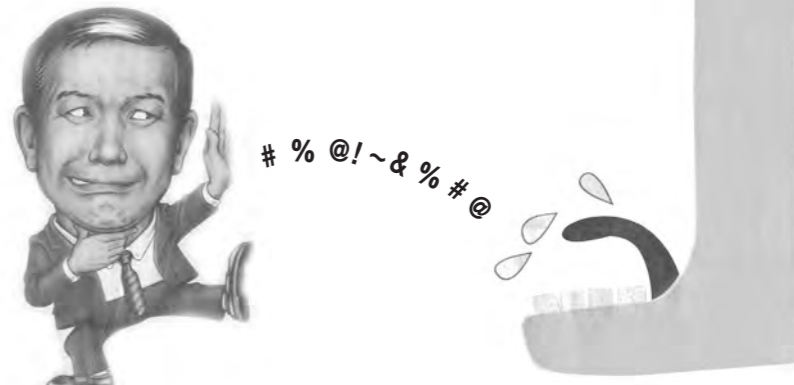
상황 II
남자 : 여자를 너무 약한 채 하는 거 아니냐? 걸보 기엔 내 두 배는 더 들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다들 못 든다고 업살이잖아.
여자 : 약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자지만 정말 남자들보다 힘이 약하단다.
남자 : 내승이겠지.
여자 : 내승이라고? 잘 들어봐. 여자는 남자에 비해 뼈의 밀도가 낮고 강도도 약해서...
남자 : 아~ 아~ 그만 좀 해라.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여자 :

상황 III
친구1 : 00야, 너 지난달에 빌려갔던 천원 오늘 좀 갚아주면 안될까?
친구2 : 천원? 야 천원 갖고 뭘

그러나? 그냥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다고 생각해라.
친구1 : 안돼~ 나 지금 뭐 사야하는데 딱 천원이 부족하단 말이야.
친구2 : 아~ 매정하다 정말.
친구1 : 매정하다니. 급하게 사야하는 거라서 그런데.
친구2 : 알았다. 알았어. 근데 너 정말 너무 한다. 겨우 천원 가지고. 이럴 땐 정말 인간이 뭐다 미워.
친구1 :

상황 IV
이웃1 : XX씨, 우리집 앞에 주차된 차 XX씨 차 맞죠?
이웃2 : 아! 네~ 맞습니다만.
이웃1 : 제가 지금 주차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차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웃2 : 아니 골목에 자기 땅 남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요?
이웃1 : 지난번 반상회 때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 골목에만 주차하기로 말이죠.
이웃2 : 아니 지금 제가 전셋 집에 산다고 무시하는 거요? 나 참! 집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이웃1 :

기획부
special@dongguk.edu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의 장으로

싸움이 아닌 대화 통한 문제해결 이뤄져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토론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말싸움'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아직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토론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까? 토론하면서 골찰 흥분하는 나 자신을 반성하며 토론에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름'을 인정하자. 다른 생각을 '틀린' 혹은 '이상한' 생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하면서 자신과 다른 견해는 무조건 배척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조차 자기와 입장이 같은 측은 선이요, 다른 측은 악이라는 독선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나올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때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절을 지키자. 예절은 예의와 범절의 준말이다. 예의는 서로 상대방에게 갖추어야 할 올바른 말투나 몸가짐을 말하며, 범절은 모든 일의 순서나 절차를 의미한다.

토론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토론을 할 때 순

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며,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야한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높인다면 대화가 진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승리에 집착하지 말자. 토론에서 승부를 중요시하다 보면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 상대방 생각을 폄하하고 올바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게 된다. 토론의 자리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움터'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의견차를 좁히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론에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엔 빨리 가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앞지르고 끼어들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런 운전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도로의 혼잡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토론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묵살하고 자신의 주장만 펼칠 경우 대화가 깨지거나 혹은 무의미한 설전만 되풀이되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 토론이 갈등만 초래하고 실익이 없다고 해서 토론을 기피해서는 안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토론의 기회를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대화예절'을 몸에 익히며 토론은 싸움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건전한 토론문화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이 있어 즐거운 사람들

철학교육, 자유로운 분위기가 '말하는 문화' 형성



편지기자 수필
"말문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토론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토론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

그러나 토론을 즐기는 유별난 사람들이 있다. 유럽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술의 나라에 살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바로 그들이다. 프랑스의 토론문화는 자유로운 말하기 습관에서 기인한다. 토론이 방송이나 토론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거리 곳곳이나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카페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들에게 카페는 커피나 술을 마시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벌이는 '토론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한 잔의 차나 생맥주를 앞에다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들을 주장한다. 토론을 나누는 사람들 역시 철학자들이나 지식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일상에서 토론을 즐기고 있다. 특정한 계층에만 편중된 토론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토론문화가 주목받는 이유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윤기(철학) 교수는 "한국의 역할된 사회구조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토론이 안정된 사회 발전을 꾀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성균관대 권순재(불문학) 교수도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말하기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평등한 관계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데는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교육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철학 교육은 토론문화 발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 고교과정에는 철학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플라톤부터 프로이트까지 유명 철학자들의 주장과 씨름하며 1년을 보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입자격시험에서도 철학이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철학교육을 통해 프랑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프랑스가 대입시험까지 철학을 포함시켜 철학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에 홍윤기 교수는 "토론문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입시나 시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확충과 같은 단순한 방법이 보다 교육투자에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등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토론문화를 살펴보면 토론을 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이어나 하는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까지 지난다면 올바른 토론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소나기

민주당 경선을 말한다



△쟁취의 선전화로 가는 첫걸음.
 △국민을 위대한 경선. 자기들끼리 해먹는 잔치에 국민을 우롱한 경선.
 △분명히 잘난 놈이 있다. 그놈이 그놈이 아니다.
 △bravo for 김근태 brave.
 △불쌍한 김근태, 팔찌에게 갈채를.
 △김근태-노무현 개혁연대로 민주당 대선 승리.
 △결국 검찰의 작태가 그대로.
 △그래. 조금씩 바뀌어가는구나.
 △김근태-노무현 연대, 이게 그나마 낫군.
 △정치쇼~~ must go on.
 △탐라대는 왜 경선에 놀러갔다.
 △국민경선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중도하차하다니. 가슴이 아프군.
 △이인제 대세론은 없었다.
 △선거인단을 더 늘렸어야 했는데...
 △노무현 만세!!!
 △선진제도 도입해도 별 수 없구만.
 △용기있는 사람만 바보되고...
 △여전히 지역감정과 금권 선거는 사라지지 않는구만.
 △선거의 적, 돈을 쓰는 몇몇 인간들.
 △욕심을 버리고 다들 사뭇하게 그래요?
 △한나라당에서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돈으로 얼룩진 지난 선거를 뒤로 하고 깨끗한 선거로 갑시다.
 △경선이면 뭐하나. 도토리 키재기인데...
 △김근태의 용기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번 기회에 이회창을 물어냅니다.
 △국민의 참여 속에 꽃피는 민주 선거.
 △후보는 우리의 힘으로.
 △그래봤자, 별 수 없다.
 △이미 대통령은 정해져 있다.
 △팬시리 내부에서 흠뻑지 말고 이회창과 싸울 준비하는게 어떨지...
 △사퇴할 사람은 일찍이 사퇴하십시오.
 △김근태 같은 사람이 물러서는 선거 풍토가 과연 제대로 된건지... 팬시리 슬럼프해지네요.
 △이것이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게.
 △여전히 지역감정은 별 수 없네요.
 △누가 제일 좋을지...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뽑으니까 좋은 좋네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돈으로 안되는 건 없었니까...
 △국민을 위한 경선인가.
 △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쇼, 쇼, 쇼... 쇼 끝은 없는거야~
 △경선이 후보들의 경제적 선거를 없앨 수 있다?
 △돈정치 속이네.
 △그들의 파워 누가 알고.

진정한 여성성은 '인간' 자체에서 찾아야

지난 14일 화이트데이, 학교 곳곳에 꽃다발과 사탕바구니를 들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지난호 동대신문에는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한 기사가 3면, 8면에 게재되었다.

특히, 8면에서는 TV 드라마, 영화, 가요, 미술작품 등 문화계에서 여성의 모습이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이 담긴 주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과 도출의 논리가 대중가요 가사의 변화, 드라마 여주인공의 직업의 변화 등에서만 머무르고 있어 의미가 확대 해석된 듯하며, 여성성의 변화를 남성과의 대립관계에서 찾는 시각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 기사를 읽고 오히려 여성이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진정한 여성성이란 남성의 대립개념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자 개인의 의견과 자료조사도 중요하지만 기획기사라면 전문가의 조인과 충분한 학술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화이트데이에 사랑을 못받은 여학생의 우울함과 사랑을 한아름 받은 여학생의 기쁨은 누가 만들어 준 것이었을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성상의 변화 역시 자본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고민해보자.

박정순 (기획인사처 기획실사팀)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교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제1337호 3월 11일자>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다른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몇몇 기사들을 통해 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못내 아쉬움과 걱정스러움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식을 키워 나가야 하며 이와 더불어 좋은 학교 또한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학교의 정책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만큼 중요하다.

도서관에서 실시중인 희망도서 신청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고, 온밤 골 강일의 벽이 학생들에 의해 훤히 보

이므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 두 사실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우리학교의 미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담당하게 찾아내 행사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고 키워 나갈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학생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동대신문사가 올바른 길잡이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

이은주 (인문대 영문4)

오늘의 글

조유인 (인문대 영문4)

시인을 꿈꾸는 젊은이

경험 하나 하나가 시어로 다가와요



"겉다보니 우연히 제가 시인의 길에 발을 살짝 들여놓았네요"라며 글 쓰는 일이 자신의 천부적 소질이 아님을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이가 있다. 바로 2002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과 200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경주조 유인(영문4) 군이다.

어린 시절 '보름달'이라는 시를 써 부모님께 평가를 부탁했는데 부모님의 웃음소리 섞인 혹평에 글 쓰는 게 부끄러워 다시는 시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던 조유인 군. 하지만 동국문화회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시와의 인연은 계속됐다. 98년 제10회 신라문화대상에서 가장 입선한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게 제 지리를 찾아 멈추어 있는 조용한 밤에 시 쓰는 걸 좋아해요"라며 차분하면서도 생기발랄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는 시가 완성되었을 때 독자 입장이 되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평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

에 조운은 "내 작품의 최초 독자인 부모님께 먼저 칭찬과 비판, 격려 그 모든 조언을 구해요"라며 작가인 부모님의 얘기를 잠시 꺼낸다. 시인과 동화 작가인 부모님은 그의 시를 평가해주는 선생님이자 작품활동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고 한다.

한 번은 독창적인 시제를 발견하고자 박물관을 한 달 동안 빠짐없이 다니며 신라 관련 서적들과 씨름하기도 했다는 조운의 모습에서 시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그의 작품관이 느껴지기도 했다.

중앙지 등단이라는 그의 꿈이 쉽지 않지만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쓰러린 경험들이 본인을 더욱 다듬어 줄 것이라 믿는 조유인 군.

"젊은 20여 년의 시간을 시로 표현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글 쓰는 게 제 스스로와의 약속인걸요."

앞으로 조운의 말처럼 그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 동국시단을 더욱 빛내는 거인으로 서 있을 그날을 상상해본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영화평 - '버스, 정류장'을 보고

등장 인물의 캐릭터 과장 아쉬워

항상 게을러지는 일요일 오전, 나는 습관적으로 TV를 본다. 그 시간대에 주로 하는 것은 영화소개 프로그램. 두 채널에서는 영화소개 프로그램, 한 채널에서는 전국노래자랑을 방송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주로 영화소개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TV에서 소개되는 영화는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게 되고, 특히 평이 좋거나 소재가 독특한 경우에는 그 영화를 보게 된다. 이번에 본 영화도 TV에서 소개된 '버스, 정류장'이었다.

주인공 태섭은 노총각 학원강사로 대학 때는 박식하고 재능도 있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지만, 현재는 그저 그런 보습학원 국어강사이다. 그리고 소회는 결혼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모범생이지만 문제 가정의 아이인데다 원조교제까지 하고 그로 인해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기도 하는 여고생이다. 태섭이 근무하는 학원에 소화가 오게 되면서 둘의 만남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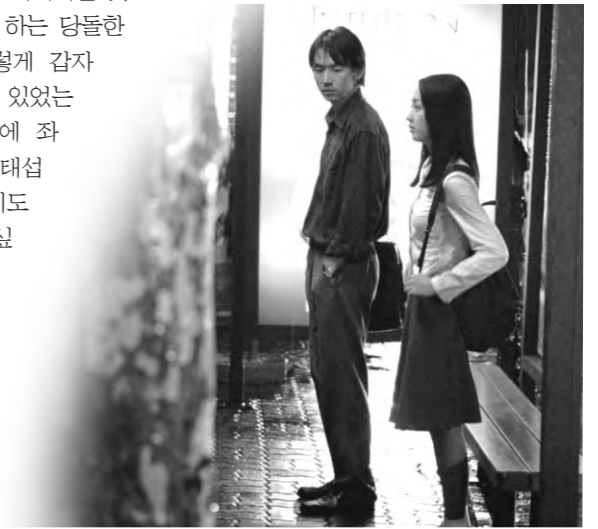
내가 본 영화소개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는 평이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귀가 얇은 나는 기대를 잔뜩 안고 영화를 보았는데 조금 실망했다.

우선, 모든 것이 냉소적이며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노총각 태섭과 아무것도 관심없고 단지 사람들이 터져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당당한 여고생 소화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서서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세상에 좌절하고 냉담하게 살아가는 태섭의 캐릭터에는 공감이 가기도 했지만, 공부를 잘 하고 싶어서 잘하고 세상이 우수워 보여서 한없이 건방진 소화의 아이의 캐릭터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었을까. 소화의 방황과 태섭의 뻘소리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겠지만, 과장된 캐릭터 설정으로

실득력을 잃은 것 같다.

'버스, 정류장'은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관객들이 저예산 영화를 의미한다는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비난 앞서 작품의 질이나 재미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버스, 정류장'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김연주 (문과대 영문3)



서평 -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를 읽고

암울했던 일제시대가 친근하게 다가와

개강이 다가오면서 무료함에 시달렸다. 방학 동안 나를 달래주던 동네 책방의 만화책이 지난 학기가 종강하자마자 시작된 나의 방문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 소설책이라도 읽어보라며 주인 아주머니가 권해주신 책이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였다. 책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지만 제목이 특이해서 작가가 누군가 살펴보았다. 이지현... 사진을 보았다. 흑백사진 속에 그녀는 내 방문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그러고 있었다. 문화동네에서 신인상을 탔는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지? 나는 웬지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 빌리고 말았다.

갑자기 사라진 애인을 찾아가는 그는 조선총독부에서 일한다. 도시계획을 위해 온갖 통계를 만드는 그는 경성(서울)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따지고 보면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끌렸을 뿐, 그는 그녀를 찾아 사립탐

정을 고용하고 그가 일러준 대로 하나 하나 그녀의 발자취를 따른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그녀의 옛 남자들. 그들이 아는 것은 각기 다른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진정한 남자라는 테러 박, 나라를 찾는 것보다 변심한 애인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일제강점기 낭만과 청년은 과연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무겁게만 생각되었던 그 시대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색다른 소설이었다.

유천호 (문과대1)

동악광장

목격길

축하합니다

△15일은 인문학부 신바람 윤리의 02학년 '이향'의 생일입니다.
 △철학과 96 김은주 조교원 거 추카추카.
 △마지막 학기다. 오빠 드디어 졸업학기... 파이팅. -혜원
 △승현아, R.T. 생활 열심히 하거라 -LAE 선배가
 △교육학과에 입학한 모든 새내기들 파이팅! 교육학과 학우들에게 축복만이 가득 하길 ~
 △재용이와 혜진이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종환아, 컴퓨터 공학과 과대표 된 거 축하한다. -P.O.T.S
 △종수야, 공익근무 소집해제 되는 날을 기대하마!
 △동국대 최고의 짝꿍이 인욱이의 생일 축하해. -영준

수고하셨습니다

△행선제 선배님들, 그동안 시험공부하느라 힘드셨죠? MT가서 재게제 놀이요. -소영, 승현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문방길

축하합니다

△신, 복, 편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C.C.V.A
 △ '침묵에서 외침으로' 준비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맑은 세상 만드는 여러분들 넘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경찰행정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인문학부 사학과 소속 글패! 올해 나았어도 열심히 하길 바래. πππ
 △신바람 윤리문화학과 학생회 여러분! 파이팅! 힘내구!! -혜원
 △3월에 개최되는 백상기 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갑투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광고 동아리 AD RUSH 회장단을 비롯한 01학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김희장
 △C.C.V.A 멤버들 올해엔 공부도 연애도 열심히 하시다.

그리고...

△3월 23일날 현여을 신입생 환영 연주회 해영~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새내기들 문화회 들어와요. 탈에서 도망치세요.
 △민총시험 END. -동국대학교 법대생들
 △성서경쟁! 사회 본 오빠 멋있었어요. -기석

열심히 하시다

△플린스 16기(새내기) 오윤영 20번째 생일 축하해.
 △익동이! 복학 축하한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수교98 경현, 대영, 의석 복학 축하추카. -00 이쁜이~
 △석민아 과대된 거 축하해.
 △차구라~과대된 거 축하한다. 글구 고모두~
 △구정! 기숙사에서 퇴관한 거 축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아 개강파티 때 애덜 챙기느라 수고했다.
 △지희야 가두모집하느라 수고했다. 나중에 밥 쏠게. -jd
 △불인 자보가 모두 몇 장이야? 20장? 고생했다.
 △뉴은 뽕뽕아리로 신입생환영회까지 참석하구. 대단하다.

△미라 언니 이번 주도 수고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주를 위해 모두 준비합시다.
 △규미야, 신입생 모집하는데 힘들지? 열심히 수고해.

열심히 하시다

△백문규 열심히 살아라.
 △창호형 일쯤 열심히 해어~
 △대근아 수업시간에 책이랑 필기도구 좀 가져와라.
 △주연아 보고 싶다~ 보면 불수록...
 △운동중 열심히 하시다. 일주일 중 6일을 목표로 -jh

그리고...

△원진아! 보고 싶다~
 △교성이 형~ 조만간 체육관에서 봐어~
 △원어버린 우산을 찾습니다. 체크로 되어있어.
 △어느 정도의 자유의 시간이 왔다. 보람차게 이번 주를 보내자.
 △현아 헛된 망상을 버려라~
 △실 친구들 언제 불는지... 잘 지내라.
 △앗싸! 이제 해방이다!!!
 △선배님들 새내기들한테 많은 정보 부탁합니다.
 △다들 군대간다 휴학계 냈다고 상준, 성준, 성호 등 부디 잘 다녀오길 빈다.

금주의 식단

서울캠					
	월(3/18)	화(3/19)	수(3/20)	목(3/21)	금(3/22)
동국관	돈육꿏고추찌개 (1300)	북어해장국 (1500)	양지탕 (1500)	쇠고기미역국백반 (1500)	닭볶음떡반 (1500)
	닭꼬치구이 (1500)	떡볶고기 (1500)	참치볶음밥 (1300)	오징어제육볶음 (1500)	게맛살탕수 (1300)
	두부김치 (1500)	얼무비빔밥 (1500)	미트볼덮밥 (1500)	돈육계란장조림 (1500)	공중역류이 (1500)
상록원	해물순두부찌개 (1500)	설렁탕 (1500)	너비아니구이백반 (1500)	어묵우동 (1500)	부대찌개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제육볶음 (1500)	햄이채볶음 (1500)	소고기키레라이스 (1500)	미소스볶음밥 (1500)
	청포비빔밥 (1300)	순대야채볶음 (1300)	오징어탕수 (1500)	닭조림 (1500)	생선가스 (1500)
교직원	우렁콩장찌개 (3000)	버섯전골 (3000)	둘솜비빔밥 (3000)	갈비탕 (3500)	콩비지찌개 (3200)
	탕수육백반 (3200)	도라지구이 (3200)	이면수구이 (3200)	오징어소면우침 (3200)	닭꼬치구이 (3200)
경주캠					
	월(3/18)	화(3/19)	수(3/20)	목(3/21)	금(3/22)
학생회관	대구매운탕 (1300)	뱅이된장국 (1300)	콩나물국 (1300)	느타리버섯국 (1300)	홍합살미역국 (1300)
	비후가스 (1800)	탕수덮밥 (1800)	스페니쉬족첩 (2000)	닭갈비볶음밥 (1700)	생선가스 (1800)
	김치볶음덮밥 (1600)	소고기볶음밥 (1700)	참치이채비빔밥 (1700)	짜장덮밥 (1700)	쭈꾸미이채비빔밥 (1600)
	육개장 (1800)	갈비탕 (1800)	육개장 (1800)	갈비탕 (1800)	육개장 (1800)



'봄'이라는 한 글자

며칠 전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날씨는 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화창하였고, 개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 위로 드라이브하는 기분 역시 나를 봄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주변에 보이는 경관이 아직은 겨울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눈을 태우는 모습에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가수의 노래에서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오고..."라고 하듯이 정말 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살짝 옆에 와 있는 것 같다.

'봄'이라는 한 글자는 자음인 'ㅂ'과 모음인 'ㅇ', 그리고 자음 'ㅁ'이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이나 듣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자인 것 같다. 봄에 대한 느낌은 우리에게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사한' 그래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들뜬 마음'으로 다가온다. 한해의 시작이 1월이라 해도 계절의 시작인 봄이 되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봄과 더불어 교정은 산소화합이라는 상큼한 새내기들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북적거린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두꺼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생기발랄한 모습들로 교정 이곳 저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느라고 모두가 바쁘게, 즐겁게 움직이고 있다.

각 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선후배간의 모임이 분주하고 대학에 갓 들어온 1학년들은 호기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계절이 가져다주는 선물까지 합쳐서 약간의 하늘을 붕붕하는 듯한 기분을 갖고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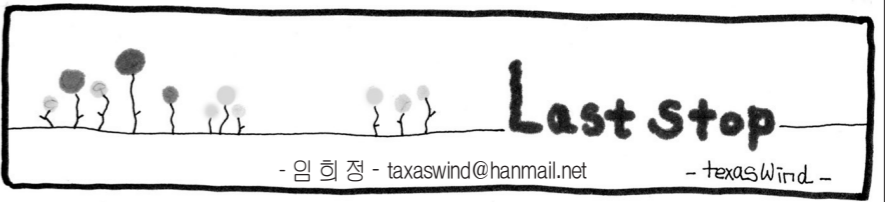
올해는 유난히도 '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성립되면서 성문제는 커다란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특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이란 문제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조심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더구나 들뜬 기분이 많은 봄날,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나 사교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이 있음은 정말 행운이다. 몇 년전 국제회의에서 만났던 인도네시아의 학자는 한국에 사계절이 있음을 너무나 부러워했다. 새로운 계절을 맛을 준비도 하고 그래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정말 이번 봄은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훗날 2002년 봄을 돌이켜볼 때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남는 그런 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혜은
사범대 지리교육학 교수



Last Stop
- 임희정 - texaswind@hanmail.net - texaswind -

후 식.

매일 하는 일들이 지겨워
어디론든 떠나고 싶다고 애달라.
사람들에게서 떠나려는 생각을 해봐..
하지만... 알고 있어..
생각에 그럴뿐이라는 걸...
혹시이란... 말이 존재 할까...? 아니. 없어
어디라도 사람들은 넘쳐나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지...
벗어나야 해...



세상을 내려다 보는 내 눈은...
비좁지만 하다...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대로 참을 담을것인지... 참음을 할것인지...
똥이내릴것인지...

광어

이지웅 (예술대 문창2)

설거지와 잔심부름으로 한달
오늘은 내가 칼을 쥐는 날
낫 손님이 우르르 몰려나간 시간
나보다 먼저 칼을 쥔 삼촌부터
배물독이 사창님, 돈을 세던 사모님,
알바생 형제들이 모두
도마 위에 시선을 모으는데
광어란 놈은 내 속도 모르고
빙판 위에 오른 놈처럼 쪼르르
불들러는 내 손을 악물린다
수조에 있을 적엔
진흙처럼 밑바닥에 웅기둥기 모여
저 죽을 때만 기다리는 놈으로 보였는데
물으로 올라오니 너 참 팔팔하다

그러나 여기는 헛집 주방
조금 서둘지만 네 아가미를 쭈시고
대가리와 꼬리를 쳐내고
지드러미를 자른다
내장을 발라내고 껍질을 벗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헛집 주방
네 살점은 단지 좀더 심심한 상태로
손님상에 나가기 위해 몸부림친다

영화평 - 2009 로스트 메모리즈를 보고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 느낀 계기

이 영화는 아주 웅장한 상상력으로 시작되어 개봉하기 전부터 많은 이슈를 일으켰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시각과 다른 결과로 비추어 내게는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하는 영화였다.

주인공 사카모토(장동건)는 조선족이면서 JBI 라는 일본 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이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일본이 동아시아 일대를 모두 점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 나라의 식민지로서 존재한다. '제 3의 도시 서울'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주권 또한 일본 손아귀에 있게 된다.

이 영화에서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사건이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시간을 건너서 바꾸어버린 역사,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조선의 독립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영화의 70%이상이 일본어로 제작되었고 영화의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나온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보고 한번 더 생각해보면 조금 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영선 (인문대 국문2)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

월드컵 분위기에 휩입어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 02학년 새내기들. 일명 산소화합(?)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작전이 은발광 여기 저기에 울러 퍼지고 있다.

가슴 설레는 풋풋함으로 캠퍼스를 누비는 새내기들의 발걸음은 가벼운 듯 보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포스터들이 휘날리고 있다. 동아리 소개, 학과 신입생 환영회를 알리는 글, 각종 광고 포스터들이 게시판은 물론이고 강의실 내부에서도 현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칠판 옆에는 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알록달록한 종이가 02학번을 애타게 부르며 붙여진다. 아무리 강의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짙은 녹색의

칠판보다는 빨강, 파랑, 노랑으로 단장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유명한 연예인이 쇼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학생은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굳이 칠판 옆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포스터의 자리는 있을 것이다.

대학문화라는 것이 아무리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화도 남을 배려하는 작은 질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스치고 지나가는 포스터 한 장이지만 새내기들이 가진 설렘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을 산소 같은 그 무언가가 아쉽다.

조영경 (인문대 국문2)

사물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학생들의 물건이나 책의 보관을 위해 교내 각 건물 복도에는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다.

평소에는 별생각 없이 복도를 지나다니다가도 무거운 책이 손에 쥐어져 있는 날에는 사물함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어쩌다 전공강좌가 여럿 겹치는 날은 그 무게로 무거운 책을 들고 강의실을 찾아 다니느라 여간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는 건 당연지사.

1학년 때는 교재도 별로 없었고 2학년 부터 쓸 수 있다는 선배의 말에 사물함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사물함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그리고 쉽게 사물함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소속된 행정학과는 아예 사물함이 없으며 다른 학과 역시 그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은 물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상 태가 상당히 불량했다.

또 배정된 사물함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암암리에 주인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사물함에 관한 필요성과 불만은 유독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학교측과 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교내 사물함 증설과 관리 체계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영희 (법정대 행정2)

제33회 4. 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안내

4. 19혁명 42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제33회 4. 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동국가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사명: 제33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2. 일 시: 2002. 4. 12(금). 08:30~17:30

3. 장 소: 북한산 (직접장소: 4.19 국립묘지)

* 등산경로: 4.19기념탑(개회식)-백련사매포소-대동문-보국문-중성문-대서문-북한산성매포소-북한산성매포소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등산로에 표시 리본을 설치하였으니 산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코스 곳곳에 산행지원팀(빨간모자) 및 의료지원팀(하얀모자 착용)이 있으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통편

가. 시내버스: 6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 10분)

27번, 127번(우회함):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나. 지하철: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4.19 국립묘지 입구 (운행시간: 07:40 ~ 10:00까지)

5. 참가대상: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6. 행사내용: 4. 19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7. 팀 구성

가. 4인 1조팀: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

라. 행정부서 단체팀: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사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 상기의 교직원 단체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부서는 4인1조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 교학과, 대학원 교학부, 박물관 등)

8. 시상

가. 4인 1조팀: 총12팀 시상 -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단체팀: 금상 1팀(W1,000,000), 은상 2팀(각 W500,000), 동상 3팀(각 W300,000)

다. 동아리단체팀: 2팀 각 W300,000

라. 교직원단체팀: 금상 1팀(W500,000), 은상 2팀(각 W300,000)

마. 장기자랑상: 10팀(4인1팀 기준) - 시상식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바. 행운상: 참가 학생 중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하계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21C 지도자 연수' 참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사. 단과대학 특별상: 단과대학 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단과대학에는 특별 상금 1백만원을 지급합니다.

9. 접수기간: 2002. 3. 25(월) ~ 4. 10(수) 09:00 ~ 17:00

10.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11.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및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나. 시상식(폐회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학과단체팀 및 동아리단체팀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나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라. 학과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됩니다.(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바.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사. 등산대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로 문의(☎ 2260-3048) 하시기 바랍니다.

아. 행운상 추첨을 위한 행운권은 행사당일 출발 전 대회본부에서 배부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서울캠 학생처

학교적응 프로그램 2002, 참 동국인으로 태어나기

새로운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 학기초입니다. 처음은 항상 설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익한 대학생활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재학생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꼭 참여하여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어떤 주제가 있나요?

주 제	일 시
우리학교, 알고 보니 이런 곳! - 학내 명소 탐방, 학교기관 이용	3/25(월) 오후 3~5시
세계를 내 품안에 - 성공적인 여학연수	3/26(월) 오후 3~5시
지금 나의 모습은? -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3/27(월) 오후 3~6시
니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 - 리포트·시험담당 작성법	3/28(월) 오후 3~5시
나에게 맞는 학과와 직업은? - 적성탐색검사에 기초한 진로탐색	3/29(월) 오후 3~5시

◎ 어디로 가지요?
학림관 J409호(월·금), 학림관 교육매체센터(화·수·목)

◎ 신청과 접수는?
당일에 행사 장소로 직접 오세요.

◎ 궁금한 점은?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로 문의

서울캠 학생상담센터



당신이 엿보는 사이,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온라인 상 훑쳐보기 문화 확산 ...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모두들 엿보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이창(真窓)’ 속 보험회사 간호사 스텔라가 참모으로 다른 사람들을 엿보는 주인공 제프에게 하는 말이다. ‘이창’은 1954년에 제작된 영화지만 스텔라의 이 대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주위를 둘러보자, 모두가 엿보는 일에 중독되어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포르노 배우의 동영상이나 음란 비디오 외에도 ‘몰카’라 부르는 몰래카메라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수도무다. 몰카는 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침실 등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한 것으로, 각종 카페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몰카가 올라오고 이들의 조회수는 천에서 만 단위까지 이른다. 또한 회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공개하거나, 회원 간에 서로 보여주는 사이트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타인의 사생활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인기를 얻는 까닭은 사람들이 타인을 훑쳐보는 행위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된 MBC 프로그램 ‘몰래카메라’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0양 비디오’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공개되어 있는 것보다는 은밀한 것, 금기에 대한 호기심은 타인의 사생활에도 어김없이 작용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이를 인간이 가진 ‘죽음의 본능’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본능이 있어서 자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만, 반대로 삶의 본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돌리게 된다. 그 결과 공격성향이 형성되는데 이 공격성의 표현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 눈일 때 그것은 엿보는 행위, 즉 ‘훑쳐보기’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훑쳐보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교장면을 몰래 봄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증세인 관음증 역시 훑쳐보기의 한 형태이며, 영화의 소재로 종종 쓰이는 것들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평론가 오은하 씨는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와 연극 등을 보는 것도 훑쳐보기 심리의 발로”라며 “촬영과 배포를 용이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훑쳐보기 욕구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욕구는 정도가 지나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몰카의 대상은 자신이 촬영되었고, 그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온라인의 특성상 이에 마땅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 트루먼은 전세계적 훑쳐보기의 피해자로 살아가다가 진실을 깨닫고는 만들어진 세계를 탈출한다. 누구나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트루먼처럼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을 보고 즐기는 주체 또한 우리 자신이다.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지만, 법이 지켜줄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다시 개인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클릭! 디자인 전문 웹진 정글 (www.jungle.co.kr)



양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마다 각각의 색깔을 입혀 코너의 차별화를 꾀했으며, 방대한 양의 디자인 정보를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았다. 예를 들어 ‘사이버 교육’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두루 익힐 수 있도록 수준별 강의록을 마련

한 것이며, 작가 실명제를 도입한 ‘놀자방’의 경우 플래시 카툰이나 명화극장을 통해 한층 더 특색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는 평이다.

주목 할만한 점은 디자인은 물론 연애·문학·스포츠 등 다채로운 분야에 걸쳐 개설된 동호회의 활동이다.

이는 회원들간의 정보 교환이나 유대감 형성의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시켜 보다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정보와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넣은 정글. 이것은 인터넷을 단지 정보 전달의 수단이나 매체로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바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미대 입시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위해 홍익대 앞에 위치한 미술학원을 찾는다. 이는 학원이 단순히 정밀묘사나 스케치 등의 표현기법을 가르치는 곳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얼마 전 디자인 전문 웹진 ‘정글(www.jungle.co.kr)’이 모 일간지의 인터넷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정글은 바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연구소의 이 디자인 사이트는 ‘매거진 정글’ △구인구직 △추천 매니아 △놀자방 등 알차고 기능적인 콘텐츠는 물론,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눈길을 끄는 콘텐츠까지 다

문화단신

책 열차 운행

대한 출판문화 협회와 사람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가 월드컵 기간에 맞춰 지하철 책 열차인 ‘메트로 북 메세’를 운행한다.

지하철 4호선에 1개 차량을 편성해 운행하는 이 사업은 200여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총 1만여권의 책을 전시·소개하기로 한 것이다. 책 열차의 외부는 훈민정음, 추사체 등 다양한 옛 글자체로 표현했으며, 각 열차마다 △책의 역사를 찾아서 △문학의 숲 속을 거닐며 △어린이 책 세상 △만화의 집 등 테마를 정해 그에 걸맞는 도서들로 내부를 꾸렸다. ‘메트로 북 메세’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밤·꽃·양’ 상영

지난해 울산인권영화제 사전검열 논쟁과 함께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영화 ‘밤·꽃·양’이 오는 30일 이화여대 이화 삼성관에서 오후 3시, 7시 두 차례 상영된다.

이 영화는 현대자동차 노조파업 투쟁 때, 소외되고 무시된 식당 아주머니들의 복직투쟁 과정을 담아 여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상영을 며칠 앞두고 울산인권영화제 측에서 사전시사 요구를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현재까지도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달마가 무대에 선 까닭은?

불교의 금기 다른 웃음 속에 스스로를 되짚어 보는 계기 마련

얼마전 스님들과 관객들의 유쾌한 대결을 그려 화제가 된 영화 ‘달마가 놀자’에는 고스톱의 고수, 무술인, 해방대 등 화려한(?) 전직을 가진 스님들이 등장한다.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는 엄숙하기만 했던 스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스님들이 이번에는 통쾌한 웃음으로 사람들의 뒷통수를 치기 위해 연극무대에 섰다.

전통타악연구소(소장=방승환)가 오는 24일까지 연강홀에서 공연하는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이 바로 그것이다.

야단법석은 장난기 넘치는 행자승들이 ‘음악공양’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야한 복장의 여자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남몰래 자장면을 배달시키는 등 불교에서의 ‘금기’가 에피소드로 등장해 웃음을 유발한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스님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뒤엎으며, 성욕·식욕 등 근본적인 욕

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리듬감 있게 울리는 목탁소리로 시작되는 야단법석은 얼마전 크게 유행한 ‘난타’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전통풍물단원이라는 배우들의 출신답게 북, 징 등 전통악기부터 빗자루, 장독대, 목탁까지 다양한 악기의 수준급 연주와 탭댄스 기술을 응용한 발구르기까지 구사해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난해하지 않고 이야기 구조 역시 여느 연극보다 탄탄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악퍼포먼스와 차별화된다.

더불어 무대라는 벽을 허물고 관객과 배우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장단을 맞추는 것도 야단법석의 큰 매력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단법석의 기획자 홍인호 씨는 “소리의 미학을 통해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 진리인 절제의 덕을 깨달을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공연이 막바지에 치달아 행자승들이 음악공양으로 정각에 다다르면 어깨를 들썩거리던 관객들도 어느새 숙연해진다. 사실 욕망에 갇혀 좌충우돌하는 행자승들의 모습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야단법석’을 야단법석 즐기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공연의 규모는 그리 야단법석할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 타악퍼포먼스 장르의 새 장을 연 ‘야단법석’,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전통타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매체비평

음반 편

너희가 통기타를 믿느냐

“웃으며 듣기에 처량한, 패러디 아르페지오”



댄스곡을 통기타로 리메이크한 '자전거 탄 풍경'의 두번째 앨범.

예전에 한 미사리 카페에서 이름모를 통기타 가수가 추어의 히트곡들을 불러주

었는데, 적당히 달콤한 목소리에 들을만한 연주가 계속되었다. 한참 분위기가 좋을 무렵, 그 가수는 젊은 손님들을 위한 노래를 몇 곡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HOT의 '캔디'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뒤로도 아이돌 댄스곡의 어쿠스틱 버전이 몇 곡 이어졌다. 듣다보니 특이하군 하는 생각, 또 한편으로 왠지 모를 처량한 느낌이 가슴을 적셨다.

'자전거 탄 풍경'은 '세발 자전거'와 '풍경'의 멤버 셋이 모여 만든 기타 트리오다. 이들이 근래 내놓은 앨범인 '너희가 통기타를 믿느냐'는 필자가 미사리 가수의 기발한 패러디에서 받은 느낌의 정체를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유 하나는 이 음반이 아이돌 그룹 히트곡의 리메이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하

나는 포크-기타 뮤지션들의 정처 없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선 처음 몇 곡은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능청스레 기타 반주로 부르고, 지오디의 어머니께 역시 보다 애절하게 소화해낸다. 핑클이 부를 땀 별로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쇼비니즘의 일종으로 보이던 지오디의 노래가 진실한 효성을 드러낸 노래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느낌을 오래 지속시키기는 힘들다.

'가시나무'가 조성모에 대한 아우입은 눈치 채기 어려움이 없으나, 그것이 허덕거꾸의 곡임을 상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디오씨와 춤을'이나 '오빠'는 이재수가 연상돼서 역시 불편하다. 기타 아르페지오

위에 얹어진 '이젠 나를 가져봐' 같은 가사나 '우리 집 개도 이런 건 안 먹겠다' 같은 고함소리는 패러디, 그 중에서도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아우입은 심증을 굳히게 만든다. 게다가 기타를 유유히 터치하며 애들의 노래를 부르는 모양새는 본래의 의도를 떠나 어딘지 모르게 처량하다. 미사리의 그 경험이 떠올라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반에 히트 곡을 리메이크해 상업적 성공을 노렸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방송 한 번 타지 않는 이들에 대한 모독일 테니까 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히트 곡 메이커, 10대 가수들에 대해 보내는 아우입은 어쩔 수 없이 들리니 어쿠스틱 음악에 대한 변명이나 책임 전가로 보인다. 포크가, 통기타가 청춘들을 이끌던 시

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고 심대들에게는 구리다는 소리를 듣는 형편이 되었다. 이젠 댄스가수들의 책임일까, 아니면 바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기타 보이들의 책임일까. 지금으론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스템의 급변속에서 어쿠스틱 음악을 하는 이들의 뮤지션쉽 역시 동시에 와해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쿠스틱 연주자들은 10대 가수들을 아우입하기 이전에 먼저 좋은 곡을 쓰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일에 치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어쩌나. 통기타를 믿기엔 너무 먼 길로 와버렸으니.

배성록 자유기고가

대학문화의 얼굴, 대학가를 진단한다



문화를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정의한다면, 대학 문화에는 대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란 원래 현실 세계의 모습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험적 공간이다. 대학인들은, 따라서 현실적 가치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험가이기도 하다. 그들이 품고 있는 장소, 즉 대학과 대학가는 바로 이런 대학 문화가 녹아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가가 차지하는 장소와 그 공간이 반드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소와 공간은 서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소가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공간은 실천적 개념이다. 장소가 고정된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간은 장소가 제시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려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말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

대학과 대학가는 장소가 주는 구속 때문에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가가 고도로 상업화 되고, 또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장소의 구속력, 즉 경제적 이유가 크다. 이제 대학가는 대학이라는 수식어가 필요없을 정도로 일반 상업 지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상업적인 장소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신상품의 소비행태를 시

험하는 곳이 바로 대학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가의 낭만과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질서한 상업화로 전락해버린 대학가의 공간을 대학인들이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 즐비한 상점들이 제공하는 한정된 사용가치를 대학인들이 초과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가지 목적으로 장소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상점들의 희망을 배반하고, 대학인들은 그 곳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무한정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토론과 공부의 장으로, 또 때로는 사교와 오락의 공간으로.

이렇게 대학가는 문화적 의미와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각각의 목표가 서로 달라, 상업적 논리만 대학가의 문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대학가의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자본의 논리마저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학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대학가라는 장소가 추구하는 상업적 현실과 대학인들이 바라는 이상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장소와 공간, 자본과 문화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야말로 대학가를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사이의 타협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좋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대학가를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상업화된 대학가의 상점을 통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자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학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문화적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가의 문화는 대학인들만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는 민주적일 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대학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바로 이런 문화적 원칙을 따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해서, 대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학가가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상업적 장소마저도 민주적 공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조종흡 예술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문화는 하나요 자본은 열, 이것이 우리 대학가래요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대포집은 열이요."

1970년대 가수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파란 많은 세상' 중 한 구절이다. 대학 주변 거리의 모습을 통해 유신초기 변질된 대학문화를 풍자한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가는 본래 대학문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 왔다. 또한 전체 대학문화를 반영하는 중에서도 그 대학가가 위치한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가는 거의 술집, 오락실, PC방, 당구장 일색으로, 변변한 서점 한 곳 없이 대학생들의 천편일률적인 소비문화만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대학만의 문화적 특색이 드러나는 대학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홍익대학교 주변 거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거리미술제'가 열린다. 거리미술제란 '통일의 거리' '반핵의 거리' 등 홍대생들이 테마를 정한 후, 답을 칠하고 건물을 꾸며 거리를 바꿔 놓는 행사이다. 1993년 '미술문화의 대중화'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기 시작한 이 행사는 해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리 변화, 라이브 클럽 등 실험적이고 풍부한 문화행사로 알찬 축제를 꾸려 왔다.

이밖에도 흥대앞은 피카소거리의 특색있는 카페와 화방, 공방, 밤이

면 어깨에 기타를 맨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클럽 등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주류와 비주류가 스스럼없이 만나 융합하는 곳, 젊음이 살아 숨쉬는 청년예술가들의 거리, 미술대학이 유명한 홍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앞은 '제2의 명동'이라고 불릴만큼 의류매장과 미용실이 밀집해 있는 패션의 거리이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 발빠르게 주도해 나가는 이대 앞의 이런 특성은 여자대학이라는 이대만의 성격과 패션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주와 관상을 봐주는 카페가 많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소극장이나 콘서트장과 같은 문화공간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지만,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대학가 상권형성 및 분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자본이지만, 흥대와 같이 그 거리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대학인들의 몫일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주민의 눈으로 본 우리 대학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

특색없는 본교 주변 ... 병원 · 인쇄소 등 계층의 다양화를 장점으로



어떻게, 과연 대학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을까. 이에 서울캠퍼스 후문에 위치한 사고기 전문점 '백상'의 이옥희(54) 씨를 만나 우리 대학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그동안 본교 주변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1965년 내가 시집왔을 때 동국대학교 주변은 가정집 뿐이었다. 남산보호를 이유로 5층 이상의 건물은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큰 건물이라야 동대과 삼성병원도 전부였다.

그리고 온가쪽이 나들이 가는 한옥마을은 길가던 사람들까지 울퉁하게 만들었던 한병부대 '수도경비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단체손님으로 그들그들 하던 민속주점이 사라진 것도 이미 오래 전 일이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샌드위치 전문점이나 PC방, 아이스크림 가게, 테이크 아웃점 등 개인을 위한 다양한 소규모 점포들이 특히 많아졌다. 이렇듯 대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가를 둘러보는 말이 있다. 이렇듯 대학가는 대학문화를 반영해 형성되고, 또 창출해내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 면 본교 주변은

- 우리 대학가만의 특징이 있다면.
= 솔직히 대학가라는 인상은 별로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면 5~6년 전부터 대형화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애경센터나 인쇄소, 주택가, 병원 등 여러 계층과 다양한 생활모습이 공존한다는 점이 특색이라면 특색일 것이다.

- 지적할 만한 문제점은.
= 앞서 이야기했지만 대학가다운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다. 동대 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아들 때문에 여러 대학가를 다녀왔다. 하지만 옷가게와 패스트푸드점이 넘쳐나는 다른 대학가에 비해 동대 주변은 그 흔한 옷가게나 패스트푸드점 하나 없이 별다른 특색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대학가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동떨어진 느낌이 강하다.

경희대학교 주변에는 30년 된 파전가게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주변에는 그런 전통을 지닌 가게 또한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곧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대 주변 상가가 동국대보다는 삼성제일병원으로, 학생들보다는 직장인들에게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앞으로 동대 주변의 모습에 바라는 것이 있는지.
= 현재 동대 주변을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변을 보다 깨끗하고 건전하게 가꾼다면 이것 역시 새로운 대학가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대학가는 더이상 대학생만의 전유공간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천하장사

▲씨름선수가 한 명 있다. 현재 한라급인 그의 꿈은 천하장사다. 때문에 100kg이 넘는 백두급 선수들과 겨루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는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열심히 운동한다.

그가 많이 먹고, 몸집을 불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씨름선수가 때문이다. 만약 그가 먹는 자체를 즐겨 음식이 많이 섭취하기만 한다면 '비련한 사람'

이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립대학은 교육여건개선 등을 이유로 매년 등록금을 인상한다. 그렇다면 교육환경도 그만큼 나아진 걸까. 답은 '아니오'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몇 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이 실질습비·도서비스 등 교육여건개선과 관련 없는 이월·적립금이나 토건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상된 등록금이 교육여건개선 대신 학교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국 그동안 대학의 등록금 인상 명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월·적립금이 늘어난 반면, 재단 전입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몇 년간 재단전입금이 아예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사학도 있다.

이는 재단이 '자산 불리기'에만 열중했을 뿐, 학교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학법인이 자산 불리기에 열중하는 것은 씨름선수의 몸집 불리기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교육환경에 투자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보다, 재단전입금 확보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교육재정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보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며 이월·적립금을 남기는 사학재단에게 묻고 싶다. "년 왜 그렇게 많이 먹니?"

김도영 대학부장 circus@dongguk.edu

동아리 탐방 — 경주캠 seven glass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개성을 표현한다

댄스음악 재즈화 등 실험적 시도로 그들만의 음악 만들어

재즈, 락, 댄스 등 음악 장르에 구애받기보다 색다른 음악을 만들기 위해 기타 스트링에 맞춰 노래하는 이들이 있다. 1988년 창단 당시 구성원 7명 모두가 안경을 쓰고 출발했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seven glass'가 그 주인공이다. seven glass의 구성원은 현재 7명이 전부터. 비록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타 동아리와 달리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기수제가 없어 선후배간의 우정을 돈독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공연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중인 seven glass 부원들.

이러한 seven glass는 여느 음악 동아리와 달리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성수(관정3) 기획부장은 "댄스 음악을 재즈화 하는 등 늘 개성 있는 음악을 만들려 노력한다"며 즉석에서 통기타와 전자드럼을 함께 연주해 보인다. 베이스, 일렉트릭,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며 블루, 재즈 음악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자신들에게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부원들은 음악 연습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주·가창 연습 못지 않게 이들은 작사·작곡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러한 연습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동아리방 선반대 위에는 각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트로피가 일렬로 놓여 있다. 지난해에는 순수 창작 곡 '그리운 너'가 울산대학교가요제와 본교 입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도엔 MBC 대학가요제 본선에 입선하기까지 했다. 눈에 보이는 공연과 수상만이 자신들의 전부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에 자리하

고 있는 송실대 순수 음악 동아리 '서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자랑하기도 한다. 15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교류는 seven glass와 서 있는 사람들 서로에게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seven glass는 고정 팬들의 큰 박수와 환호소리가 이들이 오르는 무대마다 늘 함께 한다. 지난해 공연을 떠올리며 윤상모(고미사3) 회장은 "공연은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 해준 환호성을 오랫동안 지닐 수 있어 좋아요"라며 "관객은 공연이 안겨준 기쁨"이라고 말한다.

장르에 갇힌 음악에서 벗어나 항상 색다른 음악을 시도하는 그들이 앞으로 더 다양하고 발전된 음악으로 관객에게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현 기자
easy01@dongguk.ac.kr



취업·자격증 정보

직업경력개발 계획이 직업선택의 출발점

직업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재직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해당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더니 70~80%이상의 응답자가 '우연한 기회에' 라고 답했다는 조사자료가 있다. 이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고 당시 상황여건에 따라서 첫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1988년 IMF라는 우리나라 최대 경제적인 난관이 있기 전까지는 첫 직장인 평생 직장이라는 공식이 성립했듯이 소속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근로자들도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평생직업(직종)'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직업경력개발의 계획이 그 출발점이 된 것이다. 직업경력을 쌓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각 단계가 있는 법이다. 또한 각 단계

별로 소요시간이 있으며 각 개인이 '커리어 스텝'을 잘 밟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커리어 스텝은 커리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커리어 스텝(Career Step) - 직업경력 단계

K양이 미래에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희망한다면 마케팅 어시스턴트(Marketing Assistant)에서 시작하여, 마케팅 리더, 마케팅 매니저 등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것을 커리어 스텝이라고 한다.

커리어 스텝을 내딛을 때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비정형적으로, 비체계적으로 커리어 스텝이 밟아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커리어 스텝을 착실히 밟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미리 학습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를 제

로 밟아 가야 한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우리가 초등 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야기다. 속도로 보면 도저히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우에서 일찌감치 빠른 걸음걸이로 앞서가던 토끼가 자만심에 빠져서 잠든 사이에 거북이는 느리지만 인내심을 갖고서 경주를 하여 마침내 우승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커리어 단계를 잘 알고 커리어 단계를 잘 밟아서 나아가야 유능성이 큰 커리어를 향상시켜갈 수 있다.

커리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를 착실히 밟아 간 사람이 결국에는 직업진로를 성공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서 노력해 가야 그 사람은 직업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취업시기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경쟁이 펼쳐지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지는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 서울지방노동청 중부고용인정센터

35mm 세상



할머니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지도

벌써 11년...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오늘도 할머니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가슴에 한을 간직한 채

할머니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500차 수요시위에서
엄태우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야학' 교사수급 갈수록 어려워 교육으로 희망주는 봉사에 학생들 참여 필요

요즘 계시관·건물 벽면·학생회관 앞·팔정도 등에서는 동아리들의 새내기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새학기가 되면 동아리들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새내기 기근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학생들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80년대 대학생들의 활동으로 대표되었던 야학이 바로 그곳이다.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비정규적 사회교육기관인 야학은 일제시대부터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해왔다.

야학은 1970년대 대학생들과 사회사업가들이 천막·사회봉사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야학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도시 빈민과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때는 사회운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동아리들과 마찬가지로 야학도 대학생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학교사 박문수(단국대 정화4)

군은 "최근 주부층의 학원열 확산으로 야학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사는 줄고 있어 야학 교육·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야학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봉사정신과 호기심으로 야학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많지만 교육과 함께 야학의 재정·운영 관리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만다고 한다.

또 이같은 봉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야학에서 교사를 해야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재를 꺼리는 학생들도 많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야학도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전국야학협의회(회장=이은주)를 조직했다. 전국에 있는 개별 야학 160여 개소와 각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야학협의회는 우선 시급한 야학 교사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학생들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이 수업 후 한 두시간으로 배움을 놓친 많은 이들과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야학은 다시 한번 활기찬 희망의 교육기관으로 태어날 것이다.

※ 야학교사 봉사 신청문의 - 전국야학협의회
(http://www.yahak.com)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Q & A



봉사 학점 (서울캠)

- 이번에 참사람 봉사단 신청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21학점 꼭 채워서 듣는데요. 그러면 최대 학점(21학점)을 넘기는 건데 상관없는 건가요?
= 봉사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2002학년도 1학기에 봉사학점을 포함하여 22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경주캠)

- 일반휴학을 병사휴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불이익은 없습니까?
= 입대영장이 나오면 반드시 입대 전에 입대영장 사본과 도장을 가지고 소속대학 교학부에 병사 휴학을 내야 합니다. 일반휴학 후 병사휴학으로 바꾸지 않고 입대하게 되면 휴학기간(1년) 경과 후 휴학기간 만료(비복학) 제적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Q&A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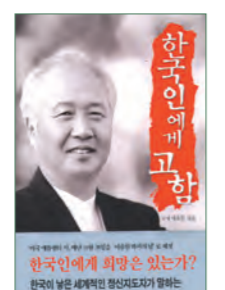
책소식

당신 기자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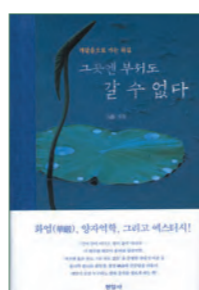
저자는 비대 비판 신문들의 위선에 대해 진솔한 일격을 가한다. 신문이 얼마나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이 신문의 입장에 따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기사화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신문의 권력화에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오동명 지음/ SJS 엔터프라이즈 / 정가 8천800원.

한국인에게 고향



이 책은 30일까지 한문화 멀티미디어에서는 이 책의 독서감상문을 공모하고 있다.
(문의 3218-7552)
이승헌 지음/ 한문화 / 정가 7천800원.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끌기 위해 섰던 법문을 정리했다. 대중들을 위해 경론과 공안에 담긴 참 뜻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설교함으로써 화엄 일승법의 요체인 '마음뿐인 도리'를 밝혀낸다. 특히 현대 양자역학이 도달한 물질관의 함의를 자세히 밝히면서 아무런 공력도 들이지 않고 잠잠히 부처 땅을 밟는 불교 유심의 도리와 대비시켜 과학적 사고에 단련된 현대인들이 유심의 도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대우 스님 지음/ 현암사 / 정가 1만5천원.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대 창작음악동아리

since 1991

몽계구름

몽계구름이 신입생들을 모집합니다.

1학기 신입생 오디션
일시 : 3월 19일(화) 오후 6시
장소 : 서울캠 학생회관 5층 몽계구름 동아리방
모집분야 : 작곡, MIDI, Vocal, E.Guitar, Bass, Keyboard, Drum, A.Guitar, 기타 악기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불과 함께 멋진 인연 만들기

불교에 관심있는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Quest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여러분의 명방울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할 때 당신은 이미 Quest의 일원입니다.